

정보 무늬(QR코드) 이용 시, 음성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9.(수) 08:30 배포: 2026. 4. 29.(수) 08:30

“봄나들이 철, 관람객·차량 몰려 몸살”... ‘나들이’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나들이’ 관련 민원 5,622건 분석
- 시설 안전 관리 강화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 공유
- 3월 민원발생량은 132만여 건으로 지난달 대비 21.2%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나들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설 안전 관리 요구와 교통·주차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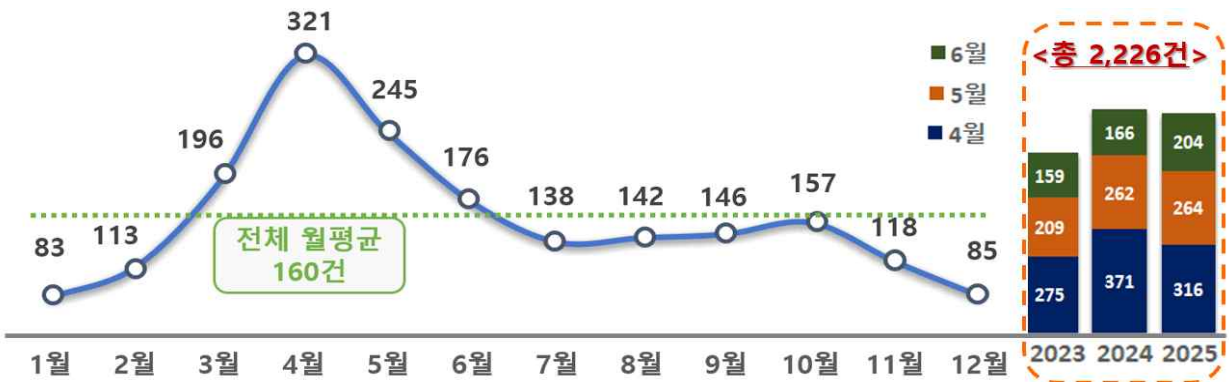
특히 5월 황금연휴를 맞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나들이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2023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나들이 관련 민원 5,62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나들이 관련 민원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기간 민원은 총 2,226건으로 전체 분석 대상의 39.6%를 차지했다.

< 최근 3년간(2023.4.~2026.3.) 민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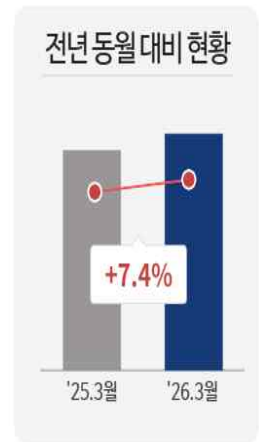
- 나들이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시설 안전 관리·정비 요구, ▲관람객·차량 과밀로 인한 불편,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시설 안전 관리 강화, ▲나들이 혼잡·갈등 최소화, ▲편의시설 확충 내실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붙임] ‘나들이’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3월 민원 발생량은 1,317,873건으로, 지난달 약 109만 건 대비 21.2% 증가했으며, 전년도 3월(1,227,504건)과 비교 시 7.4% 증가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 운영 중단(25.9.26.~10.27.)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40.1%가 증가한 충청남도로서, 특히 ‘도로파임(포트홀) 등 도로 파손 정비 요구’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 기관 유형별로 3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26.8%, 지방정부는 19.2%, 교육청은 52.7%, 공공기관 등은 28.2% 각각 증가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경우 ‘TV 수신료 해지 요청’ 관련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183.1% 증가한 97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구례군에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등으로 지난달보다 95.0% 증가한 23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구 고등학교 신설 요청’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112.7%가 증가한 6,786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등 중에서는 ‘공동학위제 철회 요구’ 등 총 488건이 접수된 서울과학기술대가 지난달 대비 4,780.0%가 증가하여 민원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 「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별첨]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3월 동향)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박은령 (044-200-7281)
		담당자	주무관	윤영성 (044-200-7330)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민원정보분석시스템 #나들이 #공공화장실 #축제
#국민의소리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례군
#경기도교육청 #한국과학기술대

[안전사고 대비 시설 정비 요구]

- 호수공원 앞쪽으로 안전 펜스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날이 따뜻할수록 어린 아이들이 산책하기 좋은데요, 빠르게 킥보드를 타거나 뛰어다닙니다. 좀 더 안전한 펜스와 경고문 등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호수에서 익사 사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건의드립니다.(‘23.4.)
- 매년 봄에 벚꽃축제로 많은 시민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보행로 일부 구간에서 가로수 제거 이후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축제 기간 사진 촬영 및 이동 등으로 보행 흐름이 혼잡해질 경우 작은 요철이나 턱에도 보행자가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사전 점검과 정비가 필요합니다.(‘26.3)
- ♡♡천 장미터널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산책로이고 봄에는 장미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최근 터널에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탑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주지시키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우려되니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24.11)

[시설물 등 훼손 신고]

- ▽▽어린이공원에 지압을 위한 작은 꽃 자갈을 깔아놓았는데,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 자갈 밑의 플라스틱이 올라와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관리 바랍니다.(‘24.9.)
- 장미공원은 푸른 녹지와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었습시다만 최근 들어 5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공원 안에 들어가 박스를 깔아놓고 쉬고 계시더라고요. 풀과 꽃들을 다 짓밟아놓고, 술 마시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푸른 녹지가 흠바닥이 됐어요. 당장 조치 좀 해주세요.(‘23.9.)
- ●●공원 출입구에 있는 돌의 위치를 변경하고 차량이 드나들어 보도블럭이 훼손되었으며, 공원 아래쪽에 일부 수목이 고사하여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관리 바랍니다.(‘23.9.)

[교통·주차 등 불편]

- 축제 관람 후 주차장에서 2시간을 허비한 후 출차 하였습니다. 많은 축제를 다녀갔는데 주차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한 적은 처음입니다. 출구가 한 곳 밖에 없어 축제 관람 후 한꺼번에 차량 몰림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정말 화가 납니다. 주차장 출차 대비 철저히 하세요.(‘24.11.)
- 축제를 보고 정류장에서 노모와 추운 산바람에 1시간을 기다렸지만 버스가 오지 않았습니다. 행사 기간에 버스 출발 위치가 변경되었지만, 어디에도 공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증차 및 이용 안내 홍보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야 승용차 이용으로 인한 주차난과 차량 정체가 줄어들어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26.3.)

- 많은 시민이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오지만, 많은 차량이 황색 단선 위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으며 왕복 2차선 도로까지 주차하여 단일 차로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봄과 가을만이라도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위한 관리 인원 편성을 부탁드립니다.('23.10.)

[나들이 장소 소음·노점 등 불편 신고]

- 봄꽃 축제 때문에 모든 문을 다 닫아도 온종일 너무 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주거지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렇게 심한 소음이 저녁까지 계속되는데 심해도 너무 심하네요.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24.3)
- 관광객인데 축제기간 동안 불법 노점상이 보여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불법 노점상 때문에 교통이 너무 밀리고 사고가 몇 번이나 날뻔했습니다. 이런 불법 노점상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십시오.('23.4.)
- 공원에서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에 대한 불편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원의 경우 개 운동장까지 있어서 다른 지역 반려인까지 유입되고 있으나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사례는 점점 늘고 그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줄 미착용에 대해 단속 부탁드립니다.('23.5)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

- ☆☆호수가 낚시 금지로 인해서 많이 깨끗해지고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서 벚꽃도 예쁘게 피어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류에는 공중화장실이 있지만 상류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상류에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24.4.)
- ◎◎공원은 많은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현재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한 개에 불과합니다. 어린이나 노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운동하다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의자가 더 설치되어 있으면 합니다.('23.6)